

# 턱관절장애 디지털치료제 ‘클릭리스’… 韓 넘어 美·中 겨냥

## 도전! 스타트UP 비욘드메디슨

2025년 말 식약처서 ‘클릭리스’ 2등급 디지털의료기기 품목 허가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4월부터 치과서 처방 가능할 듯” 글로벌 겨냥 美 FDA 허가도 추진 “세상에 영향력 주기 위해 창업”

턱관절 장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스타트업이 있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 3명이의 기투합했다.

개발부터 임상 연구, 승인 준비 등 총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턱관절장애 디지털치료제 ‘클릭리스(Clickless)’가 2등급 디지털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는데 성공하면서 큰 장벽을 뛰어 넘었다.

앞서 2024년에는 식약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제8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치과분야에선 최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병원 처방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4월부터는 국내 치과에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글



김대현 비욘드메디슨 대표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로별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FDA 허가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타깃으로 하고 있다. 중국 진출을 위해 조인트벤처도 추진하고 있다.”

김대현 비욘드메디슨 대표(사진)의 말이다.

비욘드메디슨(BEYOND MEDICINE)은 병원 처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앞서 현재 1200개 가량의 치과 병원과 제휴를 끌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선 아직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선례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처방 선례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목표다. 내년까지 10만건 처방이 목표다. 2027년까지 처방 병원수도 2000개까

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약 2만개의 치과가 있다.

치과의사인 김 대표가 턱관절 장애에 집중한 것은 시장성이 크고 약물 등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질병인데도 병인줄 모르고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턱관절 장애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200만명 가량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병원을 찾는 것은 4분의 1이 조금 넘는 58만명(2025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턱관절장애 환자수는 약 2억4000만명에 달한다.

그는 “턱관절 장애는 주로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다. 수면이 큰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등 몸에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도 턱관절 장애의 주범이다.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것도 원인이 된다. 환자의 90% 정도는 20~30대 여성 환자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골격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병이 더욱 심해지면 안면비대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은 약이나 합성 약품만을 주로 처방해 왔지만 이는 한계가 많았다.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재발도 많이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3세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기기”라고 설명했다.

병원처방이 임박한 비욘드메디슨의 ‘클릭리스’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돼 있다. ‘디지털 치료제’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다.

클릭리스는 자기 객관화 기반의 인지 행동치료(CBT)가 핵심이다. 개인의 턱 상태가 어떤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알고리즘 기반의 피드백을 제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등 치료에 들어간다. 근육과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재활 운동과 명상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물론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나 구강 행동 등

을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다.

김 대표는 “내가 왜 턱관절 장애가 생겼을까’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필요하면 약이나 물리치료 등도 병행한다. 환자에게 운동 요법, 명상 요법 등 AI 기반의 맞춤형 처방을 제공해 하루 5분, 6주간 치료를 실시한 결과 96% 이상의 장애가 개선됐다는 임상 실험 결과를 확보했다. 기존 (약물 등) 치료에 비해 3배 정도로 효과가 높다”면서 “클릭리스 처방을 위한 도입 비용이 없어 의료진의 진입 문턱도 낮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리포트도 제공하기 때문에 진단 수준도 향상시키고 의학적 근거도 객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클릭리스는 현재 비급여 기준으로 6주 프로그램을 약 12만원 정도에 책정할 계획이다. 주당 2만원 꼴이다. 2028년엔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목표하고 있다. 그렇게되면 환자 부담은 3만~4만원으로 낮아진다.

비욘드메디슨은 현재 약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앞선 프리 투자에선 삼성화재, 메가스터디,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누적으로 21억 원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가로막는 1순위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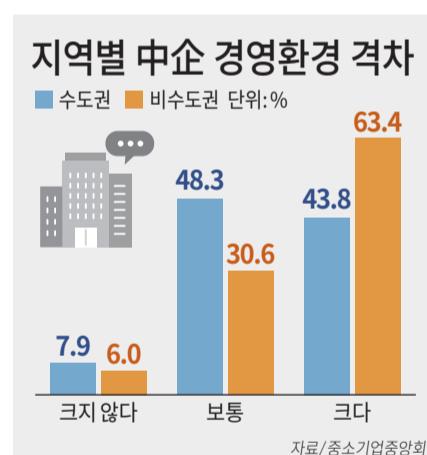
중기중앙회, 772개사 대상 의견조사  
수도권 99.5%, 지방이전 계획 없어

수도권에 있는 기업 절대다수는 ‘사람’ 때문에 지방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기업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력 지원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772개사(수도권 203개사·비수도권 56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99.5%는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역 이전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1순위는 ‘기존 직원의 지방 이전 기피(47.0%)’가 차지했다. 이외에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 증가(44.6%) ▲물류·교통·입지 조건 악화(32.7%) ▲인력 확보의 어려움(28.7%) 순이었다. 인력 유지 및 기존 사업 네트워크 단절에 대한 우려가 지방 이전의 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은 경영환경 격차 체감 수준이 달랐다. 수도권 업체는 비수도권과 경영환경 격차에 대해 ‘보통(48.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비수도권은 ‘격차가 크다(63.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격차가 크다고 답한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확보(66.2%)’와 ‘교통·물류·입

지 등 인프라(51.2%)’ 분야에서 주로 차이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기업도 경영환경 격차를 제일 크게 느끼는 분야로 인력확보(69.7%)를 꼽았다.

비수도권 기업은 지방중소기업 활성화에 ‘인력 확보지원(47.5%)’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투자·재정 지원 확대(46.4%)’, ‘대·중견기업 지방 이전 지원(26.4%)’도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과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는 평균 3.81 점(5점 만점)이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고용지원금 지원을 포함해 중장년 총·경력단절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우수 R&D 성과 사업화 ‘단절’ 막는다

중기부, ‘기술사업화 패키지’ 공고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물을 보유한 기업들의 사업화를 적극 돋는다. 중기부는 12일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R&D 성과의 사업화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했다. 중소기업이 사업화 로드맵을 자체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 기관이 수출, 마케팅, 브랜딩, 해외인증 등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정부 R&D 우수과제(100개사) ▲기술거래플랫폼 연계(40개사)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규제혁신 R&D 연계 트랙(20개사)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 R&D 우수과제 트랙은 중기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정부 부처가 추천한 R&D 우수과제 수행 기업 중 100개사를 선별해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보조금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KIND·정책펀드와 2160억 공동 인수

LX판토스가 공공기관, 정책펀드와 손잡고 폴란드에서 대형 물류센터를 인수했다. 유럽 대륙 중심부의 물류 요충지에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해 유럽 물류 시장 내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고도보 역할이 기대된다.

LX판토스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정책펀드)와 함께 폴란드 남부 카토비체(Katowice) 지역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사진)를 공동 인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2160억 원이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갖췄다.

이번에 인수한 카토비체 물류센터는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연면적 10만9000m<sup>2</sup> 규모의 신축 자산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